

THE BREAKTHROUGH OF GRACE 은혜의 돌파구 (창 38 장)

The Deceitfulness of Sin v the Hope of Righteousness

Murder....adultery....theft....slave-trading.....greed....lust....deceit...That's the sordid story of the 'generations of Jacob.' How could there possibly be redemption for the family of Israel? After selling Joseph into slavery, we left the last chapter with their deceit of Jacob, when they said, 'please identify' the robe that they knew very well was Joseph's that they'd dipped in goats blood to cover their own sin of getting rid of him.

Now, in this chapter, while we might have expected the story to have continued on to tell us what would happen to Joseph, instead we see the depravity & deceit of Judah. As we see not just sin unfold — but for Judah, the blindness of his own depravity, we wonder what possible hope there could be for redemption — for the promises God gave to Abraham in Genesis 12 to be fulfilled.

In that the Spirit would have us reflect afresh on what hope we ourselves have as fallen people living in a fallen world. Though very dark & graphic in its presentation of sin, Genesis 38 is a word of hope to sinners...that each of us would know — no matter how dark our past might happen to be, God's grace has broken through

That's the great truth of Genesis 38 — & why it diverts to Judah when we wonder what's happening to Joseph in Egypt. Genesis 38 continues the story of the generations of Israel...& shows us that not even sin of the worst kind is able to overcome God's grace.

죄의 간사함 vs 의로움의 소망.

살인...간음...도둑질...노예거래...욕심...탐욕...사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야곱 세대의 추잡한 이야기를 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보다는, 유다의 타락함과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의 배경 가운데, 오늘 구절을 통해 드러나는 유다의 죄를 볼 때, 죄악에 눈이 먼 유다에게 과연 구원의 소망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 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비록 창세기 38 장을 통해 우리는 매우 어둡고, 신랄한 죄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늘 구절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됨을 보게 됩니다...그 이유는 우리 과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어두움을 돌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8 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갑자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감은, 유다를 통해 나타난 이런 악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The Degeneracy of Judah's Household (1-11)

V1, 'It happened at that time that Judah went down from his brothers and turned aside to a certain Adullamite, whose name was Hirah. There Judah saw the daughter of a certain Canaanite whose name was Shuah. He took her and went in to her, and she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Er.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he called his name Onan. Yet again she bore a son, and she called his name Shelah.'

The chapter opens with a focus on Judah's movement away from his brothers to be with the Canaanites — firstly Hirah with whom he settled that we later find out was a friend & then with a nameless Canaanite woman.

What follows is Judah's moral decline with the daughter of Shuah — the verbs underline it — 'he saw,' 'he took,' 'he went in' Everything else about Judah's actions shows he was driven by his own sexual desires. He saw, he desired, he took & indulged his lust.

In turning to Hirah & taking the Canaanite woman, he loved himself & the world & in that despised God's covenant confirmed with his own father through his grandfather, Isaac. To Jacob, Isaac had said 'You must not take a wife from the Canaanite women' (Gen 28:1)... Judah's great-grandfather, Abraham had also similarly commanded his servant in finding a wife for Isaac in Gen 24:3. At this stage Judah was in rebellion to God's covenant to Abraham, Isaac & Jacob.

The flurry of 3 conceptions & 3 births in 3 verses underline Judah's immorality. The sin & folly of Judah continue to the next generation....

유다 집안의 타락한 모습 (1~11)

1~5 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셸라라 하니라 그가 셸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오늘 구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히라고, 나중에 이 히라 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였음을 보게 되고, 그 후에는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이자, 수아의 딸을 만남으로 타락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유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의 성적 욕망에 이끌렸음을 나타내며, 그는 갈망하여, 그 여인을 취하였고, 그의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히라와, 이 가나안 여인을 가까이함으로, 그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 가운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창세기 28:1 에서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라고 말하였고,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또한, 자기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명령을 창세기 24:3 절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 구절에서 3 번의 임신과 함께, 3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사실을 말할 때, 이는 유대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 주고, 이런 유다의 죄와 어리석음은,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집니다.

V6, 'And Judah took a wife for Er his firstborn, and her name was Tamar.'

The line of Judah was moving away from Israel — with a half-Canaanite son & his now Canaanite wife, Tamar... But the Lord wouldn't allow the corrupt plans of Judah to succeed. V7 '(But) Er, Judah's firstborn, was wicke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put him to death.'

Next we hear that Judah instructed his next son, Onan to marry Tamar to preserve his older brother's line. That was the custom of the day ... 2 generations later Moses would record it as part of God's civil law in Deut. 25 — aka 'levirate marriage' from the latin, 'levir' that means 'husband's brother.' ...But rather than provide for Tamar, Onan humiliated her as he broke the intent of the levirate law.....by his own form of birth control....

V10, 'What he did was wicke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put him to death also.'

The Lord brings the penalty of death for the second son of Judah....for the reason, not because of birth ctrl in general as the RC Church teaches ... but rather because of the abusive way he was treating Tamar in the context of his greed — end of v9 'so as not to give offspring to his brother.' Having just left the family of Israel in a moral mess....we also see that Judah & his sons were utterly degenerate.

Now with two of his sons dead, he seems to honour Tamar by saying, v11, "Remain a widow in your father's house, till Shelah my son grows up" But the author tells us the real motive behind his command — 'he feared that he [ie his youngest, Shelah] would die, like his brothers. So Tamar went and remained in her father's house.'

6 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집안은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가나안 사람의 피가 섞인 아들이, 다시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하게 됩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부패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7 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죽고 난 후에, 유다는 형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그의 다음 아들인 오나를 다말과 결혼시키십니다. 다음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함은 당시 관습이었고, 2 세대가 지난 후 모세는 이를 이스라엘의 시민법 가운데 하나로 신명기 25 장에 기록합니다. 이는 수혼제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 라고 하는데 **levir** 의 의미는 남편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나는 다말을 임신시키기 보다, 수혼제의 의도를 무시하여 임신시키지 않음으로,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10 절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죽음으로 유다의 둘째 아들을 벌하십니다...이는 그가 단순히 피임했기 때문이 아니라...그의 욕망 가운데 다말을 학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가족을 떠날 때도 그의 가정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는데...유다의 두 아들마저도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봅니다.

이제 그의 두 아들이 죽었기에, 다말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11 절에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그러나 유다의 이런 지시는, 다말을 위했던 것이 아니요,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이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1 절).

Tamar obeys Judah — but Judah’s was acting wickedly... Though Er & Onan were morally responsible.....The Lord’s judgement on them ought to have humbled Judah about the part he’d played in their corruption....his past history of deceit & lust....his covenantal unfaithfulness. Here was opportunity for acknowledgement of his sin & repentance. Instead, he simply moved Tamar away. Instead of acknowledging his son’s guilt — admitting his own guilt — he secretly & wrongly was blaming her for their deaths. It was just too convenient in order to justify his own failures.

Whenever we refuse to admit our sin....we necessarily try to shift the blame to others
But the Lord in His grace won’t let His children remain in a state of indefinite moral decline.....sometimes He visits trials that bring us to our knees — sometimes we experience a moment of awakening from His word as the Spirit convicts.

Would that each of us increasingly have the humility to admit our guilt & know the assurance of grace that in Christ we are not condemned....may that free each of us from the fallen tendency not just to remain unrepentant — but to condemn others in our thoughts, words & actions.

Judah’s Lust: Tamar’s Desperate Plan (12-19)

v12, ‘In the course of time the wife of Judah, Shuah’s daughter, died. When Judah was comforted, he went up to Timnah to his sheep shearers, he and his friend Hirah the Adullamite. And when Tamar was told, “Your father-in-law is going up to Timnah to shear his sheep,” she took off her widow’s garments and covered herself with a veil, wrapping herself up, and sat at the entrance to Enaim, which is on the road to Timnah. For she saw that Shelah was grown up, and she had not been given to him in marriage.’

다말은 유다의 말을 따랐지만, 유다는 못되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엘과 오난의 악행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유다 또한 이들의 심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자기 아들들에게 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회개하기보다는, 다말을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립니다. 자기 아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는 암묵적으로 다말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쉬운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 거부할 때...대부분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이런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때로는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을 멈추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며,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함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의 확신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유다의 욕정: 다말의 치명적인 계획 (12~19 절)

12~14 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딘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딘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쉘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From the time to Shelah's maturity to a young man....possibly only 3 or 4 years, Tamar had remained obedient to Judah's command — as evidenced by her widow's garments. It was obvious that before she began to plot her desperate plan, she'd seen Shelah as an adult man.

Numbers 26:20 says he had children & his descendants were called the 'Shelanites.' Judah had found someone else for his youngest....So Tamar swung into action to give Judah the impression she was a Canaanite temple prostitute...evidently with her covered face.

What is telling is that she knew the kind of man her father-in-law had become...a man who was predictably lustful...& hypocritical — in his own widowhood; he was poised to vent his carnal desires....while demanding Tamar remain a widow indefinitely

To his hypocrisy Judah added more sexual immorality...He wasted no time v16, 'He turned to her at the roadside and said, "Come let me come in to you," for he did not know she was his daughter-in-law. She said, "What will you give me, that you may come in to me?" He answered, "I will send you a young goat from the flock." And she said, "If you give me a pledge, until you send it—" He said, "What pledge shall I give you?" She replied, "Your signet and your cord and your staff that is in your hand." So he gave them to her and went in to her, and she conceived by him. Then she arose and went away, and taking off her veil she put on the garments of her widowhood.'

Look at what Judah was willing to trade to satisfy his lust... He gave Tamar his most personal items. The "signet" was his seal of authority — often a small cylinder that hung off a cord around one's neck.

아마 3~4 년만 지나면 셸라가 장성하여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의미로 과부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20 절에서 말씀하기를, 셸라의 자손들을 '셸라 종족'이라 부를 때, 이는 유다가 다른 사람을 그의 아내로 찾았음을 의미합니다...이런 이유로 다말은 그녀의 치명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성전의 창녀로 위장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예상대로 그는 정욕적이었고, 위선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유다는 자신 또한 같은 미망인으로서, 다말에게는 계속해서 과부로 남기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욕은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16 절에서 이런 유다의 위선은, 성적 부패와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6 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 절에서 이런 다말의 질문에 유다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17~19 절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서 유다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내어주려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다말에게 자기 자신의 가장 사적인 물품인 "도장"을 줍니다. 도장은 그의 권한의 표시물이었고, 그의 목에 작은 통에 매고 다녔던 물건입니다.

The staff had markings to make it unmistakably his. In that, he traded his very identity for a moment of pleasure.

Kent Hughes, ‘Three generations of deceit were now complete, each involving an item of identity and a goat. Jacob deceived Isaac by wearing a goatskin. Judah deceived Jacob by dipping Joseph’s robe in goat’s blood. And now Tamar has deceived Judah, and the deceit involved a disguise, items of identity, and a goat....

The child she conceived for Er was not a grandchild of Judah”...but the son of Judah himself.

In all of this, we see the Lord’s sovereign hand allowing Judah’s sin to run its course — ultimately to bring redemption...the Lord would use Tamar’s plan to expose him so that His grace could act

Judah’s Hypocrisy, Tamar’s Triumph (20-25)

So after trying in vain to make discreet enquiry through his Canaanite friend, Hiram in order to pay her off with the goat to receive his identity markers back.....he makes the decision to cut his losses lest he become a laughingstock.

v24, ‘About three months later Judah was told, “Tamar your daughter-in-law has been immoral. Moreover, she is pregnant by immorality.” And Judah said, “Bring her out, and let her be burned.”

Judah’s response in the original has him saying just two words, ‘bring, burn’

We see his wicked hypocrisy reach its lowest point — as he reacts with unhinged rage surely this confirmed his unfounded belief that she was responsible for Er & Onan’s deaths.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그의 표시가 있었기에 이는 분명 유다의 소지품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의 신분을 잠시의 쾌락을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Kent Hughes 는 이같이 말합니다 “세 세대 동안의 속임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야곱은 영소의 가죽을 뒤집어써 이삭을 속였고. 유다는 요셉의 옷에 영소의 피를 묻혀 속였고. 이제 다말이 여기서 유다를 속였으며, 이런 속임에는, 위장과 신분을 나타내는 물품과 영소를 포함한다...이제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엘의 아이로, 유다의 손자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섭리의 손을 보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주님께서서는 이런 다말의 계획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의 위선, 다말의 승리 (20~25)

유다는 그의 친구 히람을 시켜 자기와 잠자리를 가졌던 창녀에게 영소를 지불하여 자신이 담보 잡혔던 물건을 다시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웠던 유다는 자신이 담보 잡혔던 물건 찾기를 포기합니다.

24 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데려와, 불사르라.”

우리는 그가 분노 가운데 반응함으로 그의 위선이 최악에 다다른 것을 봅니다

As she walked to her destruction...Tamar's triumph was about to be realised...

v25, 'As she was being brought out, she sent word to her father-in-law, "By the man to whom these belong, I am pregnant." And she said, "Please identify whose these are, the signet and the cord and the staff."

Here's where we see God's remarkable sovereignty in the Lord using Tamar to expose Judah's sin. In 37:32 Judah had said the same words 'please identify' with his brothers to his father in presenting him with Joseph's bloodied robe. It was a deceitful cover up of their sin

Now as Tamar said, 'please identify' it did the very opposite of what Judah had done with his brothers.....it uncovered his sin in a painful moment of stark confrontation...effectively, in those two simple, repeated words it communicated a whole lot more 'do you see what you've become?'

Judah's Repentance (26)

V26 'Then Judah identified them and said,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since I did not give her to my son Shelah."

Did Tamar sin? In her deceit & her sexual immorality, yes...but that's not the focus of God's word... Scripture presents Tamar in contrast with Judah — the one supposed to be righteous — a son of the promises God gave to Abraham, Isaac & Jacob... yet he'd tied himself to the Canaanites He'd indulged his lust, was blinded by hypocrisy & consumed with murderous rage up until the moment Tamar confronted him with his items.....On identifying the items as his..... he acknowledged the particular sin of breaking his promise — of failing to honour her ... & showed his repentance by the last sentence of v26, 'And he did not know her again.'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곧 이 상황 가운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25 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말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심을 보게 됩니다. 37:32 절에서 유다는 “보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피 묻힌 요셉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여 그들의 죄를 기만적으로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구절에서 다말이 이와 같은 “보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기서는 유다가 이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그의 죄를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유다의 회개 (26 절)

26 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의 행동이 죄였나요? 다말을 사람을 속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행했기에, 분명 죄를 범했습니다...그러나 오늘 구절의 요점은 다말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성경은 다말을 유다와 대비되는 인물로 나타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의의 길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으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다말과 대면하기 전까지 살의적 분노에 사로잡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그가 다말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인정하며, 2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함으로 그의 회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In Tamar's breakthrough of gaining justice albeit through corrupt means..... God brought a breakthrough for Judah. Sometimes the Lord visits His severe mercy on us to remove our pride before He confronts us with who we really are — sinners before the holy God.

The breakthrough of Judah's awakening was not only grace to Tamar, but God's grace to Judah to turn him back from the brink of his moral decline. In the weeks to come, we'll see Judah as a man of selfless character that the Lord would raise up & honour.

We also see that God brought a breakthrough in the coming birth that would pave the way for the greatest breakthrough to mean hope of redemption from all our sin...

Judah's Redemption (27-30)

v27, 'When the time of her labor came, there were twins in her womb. And when she was in labor, one put out a hand, and the midwife took and tied a scarlet thread on his hand, saying, "This one came out first." But as he drew back his hand, behold, his brother came out. And she said, "What a breach you have made for yourself!" Therefore his name was called Perez. Afterward his brother came out with the scarlet thread on his hand, and his name was called Zerah.'

The Lord overruled the sin of those at the centre of this story to honour Tamar with the birth of twins...with shades of Jacob & Esau who were also twins who struggled in the womb where God chose the younger....So it would be with Perez, 'breakthrough'..... In Matthew 1:3 we see that this younger twin of Judah would be a forefather of King David.....the great forefather of the greatest son, our Lord Jesus

비록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지만, 그 돌파구를 통해 다말은 정의를 얻어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또한 유다의 돌파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자만심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혹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유다의 돌파구는, 다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또한 유다에게 나타나는 은혜로, 이는 그를 최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며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최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앞으로 나타날 누군가의 출생을 통해 가장 큰 돌파구를 여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구원 (27~30)

27~30 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흉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흉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주님께서서는 쌍둥이의 탄생으로 다말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이야기 중심의 있는 자들의 죄를 기각시키셨습니다...이전에 야곱과 에서 가운데 동생이 택함을 받듯이, 여기서 또한, 어린 동생이 베레스가 택함을 받습니다...마태복음 1:3 절을 보면, 유다의 어린 쌍둥이 아들이었던 베레스가, 다윗의 선조가 되며, 가장 위대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됨을 보게 됩니다.

Our Redemption: the Breakthrough of Grace

Here is blessed assurance of our redemption from the moral failures that we all are....like Judah, we need redemption...like Judah we're blind to our need for it until the Lord in His grace shows us....that our sin leaves us in an utterly tangled mess....damaging ourselves, hurting others & storing up God's wrath for our wickedness.

In the generations of Israel — as evil as this one was — God kept breaking through with sons of the promise to redeem Israel — By grace God has broken through to redeem — to pay the price — to save all who would look to Jesus — the ultimate Son of the Promise

All that remains for each of us is to humble ourselves before Him & know the joy of his redeeming grace.

우리의 구원: 은혜의 돌파구.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복된 구원의 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유다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유다와 같이, 주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난잡함과...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세대 때, 비록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파구를 만드셨듯이, 그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짓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돌파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 가운데 낮추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